

슬린 高利貸金노파의 행
출을 보듯해 노파의存
在는 세상에 유익하지 못
하다고 죽여 버린다. 그
러나 마음의 변민은 감
출 길 없었다. 그때 또
나라는 売春婦와 만나게
된다. 그녀는 聖書 속의
「라사로」의 부활의 記
事를 그에게 읽어준다.
그후 그는 시베리아에流
刑하게 되지만 마음의支
柱가 된것은 이일로 이
되진것이다. ▼合理的으로
생각하면 예수 부활의
사건은 년센스이다. 따라
서 여기에는 여러가지解
釈이 있어왔다. 다만 人
間은 반드시 죽는다는사
실속에서 어쩌면 絶望의
인 데카단스에 호르기도
쉽다. 그럴때 復活의 메
시지는 희망을 주고 意
味를 주어온 것도 事實
이다. 크리스머스가 하나
님의 独子의 탄생으로하
나님의 사랑을 表現한다
고하면 이스터는 그 獨
자가 나의 親로말미암아
十字架를 지고 드디어는
주님을 이겼다는것을 통
하여 徹底한 하나님사
랑이 보다 切實하게 人
類속에 나타나 있는것이
다 하겠다.

총회 임직원회 개최

17일 日本政府에 의해 再
上程이 말하진 「出入国法
案」에 대한 本總會의 反
對聲明書가 채택되겠 아
니라 同法案이 国会再上
程이 될 경우의 우리의 태
도도 論議되었다.

宣敎政策委員 會 첫모임도

아울러 17日에는 작년
10월 總會에서 決定한우
리敎會의 宣敎基本政策樹
立을 위한 委員會가 그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
는데 이미 여러 委員들
이 各方面에서 상당한 研
究를 거듭해 왔으며 特
히 李仁夏總무는 기본적
策의 要旨을 作成 同委
員會에 提出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쳤다. 동선교청
책은 곧 在日大韓基督教
會의 宣敎의 使命과 方向
을 그 過去와 現在와未

西南地方연합제직회
선교는지역사회단위로

來를 내다보며 神學的인
土俗에서 보다 더 具體
的인 信仰의 表現과 行
動이 된
것이다



연합 제직회 광경

이 되 기 도 하 였 다	올 려 주 는 친 교 의 모 임 이 다	한 도 론 을 가 졌 은 데 아 는 지	러 가 지 問 題 에 대 해 진 지	一 回 연 합 회 의 를 가 져 여 기 에	月 11 日 小 倉 教 會 堂 で 第 一 回 年 會 開 會 す る こ と に な り ま す	方 會 소 모 임 이 다	西 南 地 方 에 서 는 어 느 지 에 도 있 는 지
---------------------------------	---	---	--	--	--	---------------------------------	---

出入国法案再上程으로
교회에서反對輿論漸高

日本政府는 3月16日の閣議에서 또다시「出入国法案」을「大幅修正한것」이라 하여 이번国会에提出할것을 決定하였다. 다시言及할것없이「出入国法案」은 在日韓国人과良心的日本人의 強力한 反對와 社会輿論의 非難을 받아 過去三回나 廢案된바 있다.	그러므로 이法案의 再上程으로 인해 在日少數民族은 물론 日本國民사이에 이 法案에 反對하는 強力한 運動이 展開될것이다. 이 法案에대해 日本의 基督敎會는 물론 少數者問題를 重視하는 世界敎會協議會 其他 敎團體에서 強力한 反對意思를 表明한바 있다.
--	---

世界教会関心事에서

NCC
우리총회의
日本기독교
총회의 협회
의 역할 찬양

日本 기독교 협의회 제 24 회 총회가 3월 27, 28 일의 일간 東京日本 기독교 회에서 우리 총회 C 총회 사상 처음으로 N C	서의 위치를 밝혀낸 것 이라 하겠다. 이번 총회에서는
---	-------------------------------

밖에서본
在日教会

日本에 居住한지 거의 4年이 가깝와 오는데, 나더러 「밖에서 본 在

或 在日教会가 안락사
를 日本政府의 在留資
格과 같은 原則에서 区
分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안사람의 權利
는 大端한 것일수 있다
면 나부터도 日本国에 귀
화라도 하지않는限 안사
람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일
이 있었다. 2, 3年前일
을까? 敎職者면 목회
中心한 宗教組織體에 重

공동체의 構成員이 곧 敎
會라고 理解한다。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制度上의
로만 굳어져 敎職制가共
同體를 계급화해 잔다든
가 공동體的인 안과 밝을
區分짓는 좌표가 된다면
그것은 非聖書的이라고본
다。

근래는 세계적으로 각
種社會의少數人集團 또는
성파와 差別意識의 圖式을

各 우리들은 多數人的의 對
우리는 或多數人的의 對
호 必要가 있다고 본다。

으로서의 對差성을 검토
특히 宗教集團
불수없는 우
少數人的의 團結
主張한다。나는 이
關爭戰術로서의
差別意識을 分析討論하며

在日教會가 萬一에 少數者로서 關爭에서나 教會로서 自覺에 있는 一種의 歷史的인 優先權 내지는 特權만으로 對해 적인 自己를 主張한다면 거기에는 生命力도 少다. 리의 가능성도 적을 것이 다.

성경의 사랑은 人까지도 다 받아들이

페쇄성과 差別意識의 圖式은
教會의 後進性은 意味한다



姜 汶 奎

를 생각해 본다。

를 생각해 본다. 첫째로 머리에 쓴 오르는 경우가 日本政府가 몇개로 区分해 놓은 外國人の「在留資格」이다. 日本政府의 法務省이나 出入国管理局에 가면 在留資格에 永住權所持者 一定期間居住者 特別滞在許可者 觀光者 등으로 区分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기는 하나 어느 한 在日韓國 기독교 기관의 重要 宗회에서 이 在留資格에 비준해서 被選舉權을 限定시킨다는 公言을 들었 다. 그外會員은 會費납부의 義務와 이權利者들은 役員으로 선출할 自由가 이 있다고!

둘째로 在日教會를 宗敎法人 내지는 敎職者를

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는 教會란 「하나님의 백성(信徒)들의信仰과生活의 共同体」로 理解한다. 그것은 곧 個個한 사람의 백성들이 自覺할때 그것이 곧 異邦人의 장부 유대인과 克服하는 力量인 共同體의 구성원으로서 受 得을 意味하고 있다.

少數民族의 問題가 美國의 黑人들의 自覺的인 政治運動과 더불어 크게 자 극하여 脚光을 입고 있다. 在日韓國人의 少數民族意 識도 높아지고 權利主張 도 당당한 鬭爭으로 發 展되어 감은 多幸한 일 이다. 그리고 이 鬭爭과 정에서 「우리 의 主張」이 多數人들의 對해성과 이와 같은 對해성은 모 든 宗教集團이 갖는 社 會學的인 共通點이며 後 進性이다. 이것은 기독교 의 경우 敎會史를 통해 볼 때 正統과 異端의 分

인 好畵心에서나 批判을 위한 「밖에서의 見解」를 위해서라고 지 말고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在日敎會의 規定을 남들이 가는 聖書의 토대에서 하는 일이 더 必要하 않을까? (世界學生基督聯盟重細重地域幹事)

WCC
송 사
환 할
위 린
해 에

교 억
회 류
적 된
운 교
동 포

사할린(樺太)에는 약
그지없다¹²

한명의 우리교포가 二
대전때 불려가서 노동
하다가 지금은 쏘련당국
의해 억류상태의 생
물을 계속하고 있다고한
다. 二차대전이 끝난지 28
년이 되어도 그들은 아
직도 고향을 등지고 있
다. 한국과 쏘련의 단절
관계로 그들의 송환을
한국간의 교섭은 어
디나 해도 국제 적신자
를 통한 노력도 거의말
인것 같아서 안타깝기

요즈음 WCC (세계
교회협의회)에서 이 문
제가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이고 단
독 日本에 끌려온 在日
교포에게 있어서는 가
빠져서 생활될 문제
사할린의 문제와 이제
두된것은 유감스러우나,
우리교회와 재일 교포
회는 이문제를 「말동
의 불」로 생각하지 않
을수없다.

크리스찬新聞購讀者募集

祖國教會의 超教派의 新聞인 『크리스찬신문』의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同紙를 통하여 조국교회 소식과 친교와 기도를 나눌수 있기를바랍니다.

구독료는 1년분 2,000円이며 우리 총회사무소를 통해 每週발송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3월부터 총회산하 각 교회에는 1부씩 발송하여 왔사오니 각 교회에서도 적극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東京都新宿区戸塚一丁目551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事務所楊炯春앞으로

不動產業務全般

土地・建物・山林売買・仲介・管理及び投資の御相談、不動産の事ならお気軽に御一報下さい。特に信者の方には遠近にかかわらず無料相談に応じます。

免許番号・愛知県
知事(1)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 大栄ビル)

電話 (052) 682-1177 (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1406の3

電話 (052) 771—5952

京都教会の
信明学校

京都教会會錫漣長老는 지난 28년간 千余名の 靑少年들의 民族教育을위해 同校校長으로 獻身奉仕해 왔었다. 그러나 現在大阪 韓國基督會館(KCC) 관장(사건은 유석준 명예교장)과 이원식 신임 교장(장)의 막중한 책임을 함	게 맡고있는 關係上 同校長의 職務遂行에 가장 惡려하여 辭任하게된
--	--

英・中国語講座に新設

또한 금번 新學期부터
敎師진을 補強하게 되어
다. 同校에서 수고하는 초



信明學校의 沿革·概況

設立以來四百余名修了

다음은 京都信明學校가 業에도 尽力해 오고있음을 同校案内에 의거하여 니다。

교내의 학생회 및 교직원들을 살펴보기로한	概況、沿革、理 教職員構成、教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韓國語文을 受講했으 며 前後二十三回에 걸쳐 正式修了生도 四百余名이
---------------------------------	--------------------	--

概況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祖
國光復과 同時에 韓國의
日韓國人社會의 中堅人物
로 各界에서 活躍中임니

歷史教育과 宣敎를 目的	民族精神을 昂揚하기爲하여 韓國言語	固有文化를 回復하고 民族
理事長 金在述	顧問 洪東根	△理事會構成
副理事長		

同胞들을 對象으로韓 元植	設하고 愛國情熱에 불타 大龍 芮茂 羅曾男 李	都教會内に 夜間部를 創 理事 曹畢律 金載旺 韓	二로 同年九月二十七日京 金昌業 常務理事 金錫潛
---------------------	--	---	---------------------------------------

國語	講習으로부터發足하 였습니다. 그리고	一九四	監事	金昌日	金德洙
先年四月二十七日에	日本	名譽教長	俞錫潯		

府教育令	依	京	校	長	李元植	中國語
府知事	各	種	學	校	認	可
教務主任	李聖傑	(國語)				
教師	金鴻植	(國語)	金章			
喜	(國語)					
月四日	京	都	信	明	學	校
받았으며	一	九	六	二	年	

改稱하여 今日에 이
本校는 創設된 以來二
八年間 韓國民族文化의
講師 洪東根(宗敎·英語)
또한 同校는 신학년도

해 오는바	育機關으로서 社會의文化向上에寄託하는바	在日韓國 友誼增進會
9월부터	11월부터	개강하고있으며
12월까지	4월부터	7월,

교육을 통하여	문화交流에 더욱기 民族文 宣敎事	지이다
---------	----------------------------	-----

川崎教会신축계획
총 6千60万円で

川崎교회는 그간 地域
會宣敎를 위한 목적으
로 育園을 經營해왔는
이 住宅과 育園과 教會堂
을 包含되는데 教會堂部
를 위해서도 아직 千

로 총百85평	이 용자금을 받	에서 川崎市の助成金	이 어떤에社會福祉法人
하 게	될것이라한다。	건축은 5월초에 착공	五百万円 정도의 모금이필

식건물로 개축하게 된
그러므로 동건물에는

やさしい
神学

命肯定論者にとつて有力な
たすけになることは否めな
い。最後に、イエスの弟子
のひとりにゼロテ党員がい
た、ということである。ゼ
ロテ党は当時武力をもつて
ローマ占領軍の支配に反抗
したことは周知の通りであ
る。しかし、われわれがこ
こで問わねばならないこと
は、イエスが果してかかる
ゼロテ党の党員を弟子とし
て、つぎにわれわれは
イエスは革命を志向しなか
つた、という主張をやはり

イエスは革命家であつたか (1)

横浜教会牧師 金 君 植

いことではない。最も代表的な個所としてイエスの宮殿の記事が引きあいに出される。宮殿めという行為は何らかの暴力を前提にしないでは考えられない、とする。次によく引用されるものとして、イエスが捕縛された時、彼の弟子たちが剣を携帯していたことが指摘される。地とに平和をもたす為にはなく、つるさをなげこむためにきた、というイエスの言葉は、革命は何も新しいものではない。以上にあげた聖書のいくつかの箇所から、イエスは革命家であった、とする結論を引き出すこと容易であろう。ところでこの結論自身は何も新しいものではない。これはここでも問わねばならないことは、イエスのこの言葉はローマ占領軍に対する彼の忠誠（或いは無関心）を言っているのであらうか、決してそうではないであらう。

さて上においてみてきたように、イエスは一体どちらの主張の側に立っているのであらうか、イエスはこの両者の架橋不可能性の中にはまりこんでいるのであらうか。

社員募集

夜間大學生歡迎（午前8時～午後4時）
住宅提供・自炊可能

食品・薬品包装業

加福利産業

代表者 金漢弼

〒123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二五―一二
電話 東京(〇三)八九〇―〇九五―代表



이런에 동남아 여러
선교지역을 직접 보고
또 들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것은 「선
교의 어려움」이다.宣
교하는 일이 어려울인
임은 이미 基督教敎
歷史를 통해 알고있는
바이지만 言語와 文化

宣敎地를 돌아보고

姜 東 守

를 구원하는 것임을 갇
이 이해하는 훈련된 기
독교적 역사의식 없이
도저히 승리의식 어
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므로 왕왕 선교
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선
교사의 사명이 자신의
한 것이다. 둘째로 북한

在日教会 및 宣敎에 대
해 韓國 敎會의 기대는
外地 어느 宣敎地보다
대단히 크다. 六十萬의
在日교포를 그리스도에
게로 인도하는 일은再
論의 여지가 없거니와
날로 일본화 되어자가
물질문명의 타락에
서 민족을 구원하여야

사자가 말해 줄 것이다. 조국교회와 在日大韓基督敎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계속적인 기도를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恩惠와 祝福이 在日大韓基督敎會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서울 연동교회 부목사)

로 식건물로 그러므로	총 百 85 평 개축하게 된	3 층 현	川崎교회는 그간 地域 會宣教를 위한 목적으 로 保育園을 경영해왔는 이번에 社會복지法人 로서 川崎市の 助成金 을자금을 받게됨을게	住宅과 保育園과 教會堂 이 包含되는데 분을 위해서도 아직 千 五百万円정도의 모금이필 요하다고한다。	건축은 5월초에 착공 하게 될것이라한다。
-------------------	-----------------------	----------	---	--	---------------------------

川崎教会신축계획

총 6千60万円で

《讀者詩壇》

봄

金 天 守

봄은 다시 왔구나.
새싹 트는 새 봄이, 꽃 피는 새 봄이,
눈 오는 하늘 해치고
살얼음이 사라지고
그리운 내 고향에
통일될 내 조국에
따뜻한 봄은 왔건만,
남과 북의 겨레의 마음에는
왜 안 오는고 이 따뜻한 心情.

봄은 다시 왔구나.
새비새 돌아오는 새 봄이, 보리밭 이랑에
동백꽃 흰 溪谷에
잠자던 땅속 해치고
부슬비 기다리는 내 고향에
종달새 울어대는 내 조국에
이江山 곳곳마다 따뜻한 봄은 왔구나.
五千萬民族의 마음에도
하나 될수있는 따뜻한 마음
기다리고 있는것 나 혼자뿐일까.
(長老)

부활의 현대적의의
를 생각함

신 종 국

에수님은 부활하시 지의 빛입니다. 이 역사적
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 부활로써 복음의 증인들
니다. 세월은 흐르고 역은 담대하게 일어섰고,
사는 변해도 이 부활의 희망에 넘치는 교회는 창
진리는 영원히 변할수 없 실되었습니다.
음니다. 오늘도 이 불변 만일, 에수께서 부활하
의 진리를 현존하는 교 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신
회는 힘있게 증언하고 있 양은 헛된것이요, 우리의
음니다. 전도도 헛수고가 되고,
에수님의 부활은 현실 우리의 희망이란 있을수
속에 살아있는 진리일뿐 없음니다.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에수님은 부활하셨으므
미래의 희망속에 살도록 로 살아계신 하나님의아
합니다. 들이 되었고, 희망을 주
에수님의 부활은 사방 시는 산 구주가 되셨음
며 정령을 정복한 회망 니다. 에수님의 부활로써 우

韓日教會의 架橋로

沢正彦氏宣教師로 渡韓

日本教會から韓國に派遣
され、兩教會と兩國々民間
の和解の僕としての役割を
果たすため、沢正彦氏と家族
(夫人、子供二人)は、去
る3月29日韓國に向った。
彼が韓國にいくまでには
数多くの障害があつたのは
事實である。しかし彼はす
べての困難をのりこえて神
の召命に従順する次の如き
決意を表明して向つたので
ある。われわれは彼による
神のみ業の成果を祈る次第
である。



沢正彦氏とその家族

決意表明
この度、私は韓國に渡ら
うと思ひます。この韓國行
きは、私の数年来の祈りの
課題でありました。このこ
とが、韓國教會の深い理解
と愛によってとりあげられ
また日本の主にある兄弟姉
妹が共にあずかつて見守つ
て下さることを感謝してお
ります。
私自身、隣國である韓國
(南北朝鮮)に、心の痛み
と責任を感じ始めたのは、
日韓条約締結(一九六五年)
を契機にしてでありました。
当時、韓國教會が、日本の
國家、教會に根強い不信を
投げかけていることに驚き
背後にある日本の、ぬぐい
えない罪の大きさに気付か
れたのです。それ以来、キ
リスト・イエスによる和解
を具體的に、日韓兩國、兩
教會の間で求め、このこと
のために用いられたいと祈
つて参りました。幸ひ私の
小さい祈りが聞かれ、一九
六六年春には、韓國の地を
踏み、事實、韓國の兄弟姉
妹が、日本人、日本人キリ
スト者に対してむけられた
厳しい眼をみせられたので
した。六六年の訪韓は、い
よいよ韓國への召しを固く
し、六七年から六九年にお
き、ソウルにある延世
大學連合神學大學院で、日
本人神學生として始めて學
ぶことを許されました。韓
國を隣國として愛し韓國語
を學び、韓國の諸兄弟と交
わり、韓國教會の愛と榮
光の歴史を學びえたことは
私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
い大きな経験でありました。
一九七〇年より今日まで
在日韓國人、朝鮮人の多く
住んでいるといわれる川崎
市桜本で教會牧會の任にあ
たり、彼らが担っている諸
問題を、わずかではありま
すが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この三年間、日本の教會が
当面している真剣な問題で
は、いつも韓國のことが頭
から離れず、いつの日か、
召しを待って、韓國に行き
たいという願ひをもつてお
りました。それは、戦前日
本が韓國の兄弟姉妹に犯し
た罪に加えて、今日、エコ
ノミック・アニマルとして
韓國の人たちの心を再び痛
めていることを知り、日本
人キリスト者として、日本
と韓國をいかに審き、導き
救われるかを見究めたいと
思つたからです。
この度、始めの韓國訪問
以来、私を指導して下さい
た現韓國神學大學長金正俊
先生は私の志を大きくとり
あげて下さり、日韓兩教會
の將來という展望の中で、
同神學大學で働いてみない
かとお勧め下さいまし
た。又、私がソウルに滞在
中、通つていた香隣教會の
安柄茂先生を始め、韓國で
交りを得た諸先輩、兄弟は
このことに関心をもち協力
を約束して下さいました。
更に、私の韓國行きが、個
人的なつながりで終らない
よう韓國教會が一つの宣教
の業として受けとて下さ
り、韓國教會で「共に働く
者」(コ・ワーカー)として

日本出入国法案反対声明

日本國政府は、今国会に四たび「出入国法案」を上程しました。この法案はこれまで三度提出されて、内外のきびしい批判を受け、廃案になったものを更に手直ししたものです。
現在日本に在住する外國人の90%はわたしたち在日韓國人及び中國人であり、その大多数は日本の過去の不当統治によって、強制連行されて来たものとその子弟たちであります。その歴史的事情を考へる時、当然わたしたちは日本に於ける諸權利を保障されるべきであり、日本國政府は敗戦以後、「出入国管理令」や「外國人登録法」によって、在日韓國人及び中國人を抑圧、同化、追放政策をとり続けて来ました。
今回の法案は、これらの政策を何ら改善することなく、ますますその内容を強化するものであります。わたしたちは、特にこの法案の問題点を指摘し、強くその撤回を要するものであります。この法案の問題点は、

- ①政治活動禁止事項(二十条)の新設、これは日本政府の政策に反対する在日外國人の集會や文書配布を禁止し、中止命令を發し、それに従わないものに罰則を加へ、退去強制するというもので、言論、思想、信條の自由など基本的諸權利を奪うものであります。
 - ②退去強制事由の拡大(三十三条)、これは、政治活動の「中止命令」「外國人登録法違反」「貧困者」「日本國の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など二十四項目を強制退去の事由と規定し、法務大臣の自由裁量によりどんな活動でも「退去強制」に結びつ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非人道的なものであります。
- 以上のような理由により、わたしたち在日大韓キリスト教會總會は、ただ単に在日外國人としてのみならず、キリスト者としての良心的な立場からこの法案の撤回を要求すると共に、繰りかえし法案に反対することを聲明します。
- 一九七三年四月十六日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總會長 金 得 三
社會局長 金 在 述
外 信 徒 一 同

出入国法案撤回要請書

日本國政府は今国会に出
入国法案を提出されました。
この法案の中には、特に
在日外國人が日本政府の政
策に反対する意志を平和的
手段によつて表現した場合
でも、命令によつて中止さ
せ、これに従わない場合は
強制退去させることができ
る規定が含まれてあります。
このような規定は、在日
外國人の基本的人權のひと
つである思想・信條の自由
を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
考えられます。
さらに、日本における在
日外國人の大多数が、かつ
ての不当な朝鮮・台灣統治
による強制連行等によつて

人事消息

△韓鳳愛先生
お茶の水赤雲堂病
院から、加療中이었ん
が、昨日午後一時、心
臓病で歿された。享年
七十八歳。ご冥福を祈
ります。
△金桂英先生
お茶の水赤雲堂病
院から、昨日午後一時
、心臓病で歿された。
享年七十八歳。ご冥福
を祈ります。
△申英子氏
牧師夫人。昨日午後
一時、心臓病で歿され
た。享年七十八歳。ご
冥福を祈ります。